

# 200년 된 2억짜리 와인의 맛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 <66> 대통령의 와인은 식초?

“10만5000파운드. 더 없으십니까?”

1985년 12월 5일. 런던 크리스티 경매장을 가득 메운 입찰자들의 관심은 단 하나의 와인에 집중됐다. 파리의 지하 저장고에서 발견됐다는 이 와인은 1787년산 샤토 라피트. 지금의 샤토 라피트로 칠드다. 프랑스 보르도의 그랑 크뤼 1등급 와인 중 하나다. 오래된 특급 와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와인 애호가들의 흥미를 끌었지만 와인을 더 특별하게 만든 것은 병에 새겨진 ‘Th. J.’라는 글자였다. 이를 근거로 토머스 제퍼슨 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됐고, 낙찰가는 10만5000파운드(15만6450달러·한화 약 2억원)로 와인 경매 사상 최고가를 쓰게 됐다. 그것도 이전 와인 경매 최고가인 3만1000달러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낙찰받은 사람은 미국 포브스지의 사주로 거부인 맬컴 포브스였다. 와인 자체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제퍼슨이 소장했던 와인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 최고가 기록은 20년이 넘게 지난 2007년이 되어서야 깨졌다.

이 거래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당시 경매를 진행했던 마이클 브로드벤트가 지난 17일 92세의 나이로 타계하면서다. 저명한 와인 평론가로 이름을 날렸고, 와인



크리스티의 경매사 마이클 브로드벤트가 오래된 와인저장고에서 경매 품목을 검사하고 있다. /와인스펙테이터

업계에서 귀한 와인을 가장 많이 마셔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만 해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고급 와인에 대한 경매 시장을 구축했지만 1787년산 샤토 라피트 경매는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오점으로 남았다.

1787년산 샤토 라피트는 지난 수십년간 진짜인지를 의심받았고, 브로드벤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 와인 애호가로 유명한 제퍼슨은 샤토 라피트 등 프랑스 특급 와이너리에 직접 수 백병의 와인을 주문했고, 이니셜을 새겨넣었다. 그러나 1787년산을 주문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이니셜 역시 전문가들마다 진위 여부가 갈렸다.

무려 200년이나 된 와인에서는 어떤 맛이 났을까. 2억원에 상응하는 천상의 맛이였을까.

1986년 포브스의 갤러리에 1878년산 샤토 라피트가 전시됐다. 오랜 시간 뜨거운 조명을 받으면서 와인은

끓어 넘쳤고, 코르크는 병 속으로 빠져버렸다. 다시어져버려 2억원 짜리 식초가 된 셈이다. 애초에 마실 생각이 없었던 포브스 가문 사람들은 와인이 아니라 일종의 골동품으로 여기고 여전히 보관 중이다. 와인이 아니라 와인 저장고가 아니라 대통령 기념품 전시관에 말이다.

제퍼슨은 와이너리에 직접 다녀올 정도로 프랑스 와인을 사랑했고, 특히 보르도 5대 특급 와인을 좋아했다. 그런 그가 말년에는 싼 와인들을 마셨다고 한다.

와이너리에 직접 주문하던 습관을 버리고, 대행인을 통해 프랑스 지역의 소박한 와인들을 부탁했다. 심지어 보르도 스타일을 모방한 와인까지도 괜찮다고 했다. 제퍼슨은 싸구려 테이블 와인을 마셨지만 아주 행복해 했다고 한다. 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특급 와인을 수 백병씩 주문할 때가 아닌 말년에 싼 것이 아닐까.

/smahn1@metroseoul.co.kr

# 성수동 맛집 호텔에서 즐긴다 도심 속 ‘룸콕 패키지’ 인기

## 호텔 포코 성수

9시 체크인, 15시 체크아웃  
투숙시간 연장해 총 30시간  
패션스타일링 등 이색 서비스



호텔 포코 성수 루프탑 로얄 테라스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며 ‘언택트(비대면)’ 서비스가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특히 호텔업계는 지친 일상에서 잠시나마 프라이빗한 휴식을 원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객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이색 경험도 즐길 수 있는 ‘룸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호텔 포코 성수가 투숙 시간 연장 혜택뿐만 아니라 객실에서 맛집 탐방과 패션 스타일링까지 즐길 수 있는 이색 패키지를 다양하게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오는 4월 28일까지 평일 주중(월~목) 한정으로 ‘30 Hour Stay’ 패키지를 선보인다. 오전 9시 체크인-오후 3시 체크아웃으로 총 30시간 동안 보다 여유롭게 호캉스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스탠다드룸 기준 8만2000원부터다(세금·봉사료 포함).

성수동 인근 지역 맛집과 연계해 ‘인룸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콕 성수로드’ 패키지도 내놨다. 족발로 유명한 성수동 특색을 살려 ‘위풍당당족발 성수점’의 족발세트와 함께 곁들이

기 좋은 ‘한강주조 양조장’의 나무생막걸리 1병을 직접 룸까지 가져다준다. 오는 5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스탠다드룸 기준 11만9000원부터다(세금·봉사료 포함).

호텔 안에서 이색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런웨이’ 패키지도 선보였다. 코오롱FnC의 핸드백 브랜드 ‘비케이비씨(BKBC)’와 연계해 패키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핸드백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텔 로비에 마련된 진열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1인당 1개씩 선착순으로 선택할 수 있다. 플라로이드 카메라도 대여해줘 패션 스타일링 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스탠다드룸 기준 9만9000원이다(세금·봉사료 포함). /조효정 기자 princess@

# 한강·도심뷰와 함께 온가족 힐링 ‘호캉스’



인터컨티넨탈 스카이라인 식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커넥팅룸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커넥팅룸+4인 조식 패키지 선배 30층 스카이라인에서 아침 식사 웰컴어메니티, 수영장 이용 포함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프라이빗하고 여유로운 호캉스를 위해, 일반객실 2개가 연결된 커넥팅룸과 4인 조식 혜택 등을 포함한 ‘패밀리 깃어웨이 패키지’를 4월 30일까지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조식 혜택의 경우 호텔 최고층인 30층에서 한강과 도심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연령제한이 있던 기존 패밀리 패키지들과는 달리 연령제한 없이 조식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패밀리 깃어웨이 패키지’에는 프라이빗하지만 온전하게 여유로운 휴식을 원하는 최근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문 하나로 2개 객실이 연결된 커넥팅룸을 준비했다.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여유롭게 2개 객실을 모두 사용하고, 놀이와 휴식을 따로 분리하고

싶을 때는 각각의 방에서 원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아침 식사는 30층 스카이라인 키친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메뉴들로 준비된다. 계란 요리는 주문 즉시 즉석에서 요리해주며, 메인 디쉬는 고기와 생선 중 선택할 수 있다. 그 외 샐러드 및 과일 등은 세미 뷔페 형태로 제공된다.

이 외에도 패키지 혜택으로 체크인 시 객실에 웰컴 어메니티가 준비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피트니스 및 수영장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4월 5일까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피트니스 클럽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패밀리 깃어웨이 패키지’는 4인 이용 기준이며, 가격은 주중(일~목)은 30만원, 주말(금~토)은 35만원이다. (세금 및 봉사료 별도)

한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 객실과 레스토랑을 포함한 호텔 전 구역에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봄에 만나는 보르도 와인’

26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샤또 푸르카스 보리’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20년 상반기 첫 와인박람회 ‘스프링 비노 인 롯데(Spring Vino In Lotte)’를 맞아 사벨사 소유의 프랑스 메독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르도 와인 ‘샤또 푸르카스 보리’ 3000병을 단독 출시 판매한다. /연합뉴스

# 마운티아, 데일리 워킹화·백팩 선보여

활동성·편의성 등 기능성 높여

비와이엔블랙아크 관계사 동진레저가 전개하는 아웃도어 컬처 브랜드 마운티아가 데일리 아웃도어 아이템으로 제격인 워킹화와 백팩(사진)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워킹화와 백팩은 일상생활부터 운동, 가벼운 트레킹 등에서 꼭 필요한 활동성과 편의성 등을 갖춰 데일리 아웃도어 활동에서 최적의 기능성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워킹화 ‘라이언’은 미드솔에 발의 뒤 틀림을 잡아주는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소재를 적용해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며, 쿠셔닝이 우수한 ‘오솔라이트’ 인솔로 착화감이 탁월하다. 외피에는 ‘아쿠아블럭’ 방수 원단과 ‘메쉬’ 소재를 함께 사용해 방수 및 투습 기능은 물론, 통기성이 뛰어나다. 또한, 다



일일 시스템으로 신고 벗기 편하다. 색상은 블랙, 네이비, 베이지 3가지이며, 가격은 12만 7000원이다.

‘그리드 백팩’은 전면 개폐방식 구조를 적용해 소지품을 넣고 꺼내기 편리하다. 내부에는 노트북과 다양한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오거나이저 포켓, 외부에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으로 각 수납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다크그레이 한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10만 9000원이다. /조효정 기자